

■국회 '경제·민생분야' 긴급 현안질의

“강만수 환율정책 경제위기 불렀다”

국회는 23일 경제·민생 분야 긴급 현안질의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환율 정책 실패를 송곳 추궁했다. 강 장관은 이날 야권의 사퇴 요구 공세 속에 답변도중 퇴장하는 '수모'까지 겪었다.

한는 게 용기"라고 사과를 요구했으나, 강 장관은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에 대해 얘기했을 뿐"이라는 답변을 되풀이 했다.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의 긴급현안질문에서 민주당 김세웅 의원이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환율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레드카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與野 “고물가·성장 우선정책” 집중 비난 강 장관 “삼겹살값 모른다”...퇴장 수모도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강 장관은 "제가 직접 사고 있지 않아서..."라며 말끝을 흐렸다. 강 장관은 "버스는 주말에 가끔 타서 (버스비는) 안다"고 진화를 시도했다.

한 자각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같은 당 나성린 의원도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움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경제대책이 옳았는지 따져 보겠다"며 "환율정책에 개입한 것은 성급했다"고 꼬집었다.

요구한다. "퇴장하십시오"라고 호통을 치자 강 장관은 "알겠습니다"며 멱쩍은 표정과 함께 답변대에서 물러났다.

‘쇠고기 국조’ 초반부터 삐걱

정부 자료 제출 거부에 민주 “보이콧” 검토

여야가 미국산 쇠고기 파문의 진상을 파헤치겠다며 시작한 '쇠고기 국정조사'가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정부가 민주당이 요청한 자료제출 요구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면서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등 2건 뿐이다. 또 외교부는 이명박 대통령 방미시 면담 내용, 양측간 협의 내용 등 민주당이 요구한 자료 8건에 대해 "공개 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기밀 사안"이라며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면서 "그나마 정부 제출 자료는 참여정부 설계지문에 악용당할 수 있는 문서로, 정부의 태도에 불신과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며 "국민을 속이는데 앞장선 정부의 모습이 재연되고 있는데, 결코 묵과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민원법률위원장 임내현 지방자치위원장 안규백

민주당은 2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략기획위원장에 윤호중 전 의원, 홍보미디어위원장에 박선숙 의원, 교육연수위원장에 유기홍 전 의원, 지방자치위원장에 안규백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에 조성준 전 의원을 각각 임명했고 대외협력위원장은 추후 인선하기로 했다. 임내현 전 법률구조위원장은 광주 고검장을 지낸 법조인 출신이며 박선숙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홍보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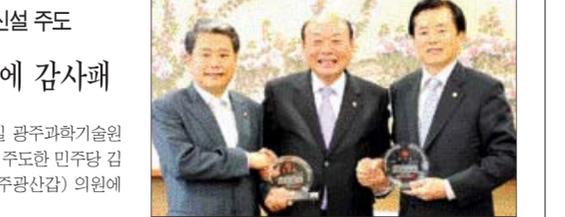


<임내현 위원장> <안규백 의원> 조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인사위원으로는 이미경 사무총장과 박영선 정책위 수석부장,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 김교홍 사무부총장, 김상철 의원 등이 선임됐다. /박지경기자 jkpark@

광주과기원 학사 과정 신설 주도

김효석·김동철 의원에 감사패

광주시와 광주과학기술원은 23일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 신설을 위한 법률 개정률 주도한 민주당 김효석(당양·곡성·구례), 김동철(광주광산갑) 의원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광태(가운데) 광주시장이 23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김효석(오른쪽), 김동철(왼쪽)의원에게 광주과기원 학사과정 개설을 위한 법 개정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한 뒤 악수하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구의회 의장 반 토막 나눠먹기?

광주 남구의회가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면서 의원간 담합으로 2년 임기의 의장직을 1년씩 나눠 갖기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와 통화에서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조영표 의장과 김관중 의원이 1년씩 번갈아 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른 각서까지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남구 의회 대부분의 의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광주 남구의회 '후반기 1년씩' 밀약설 당사자들 "반대파 음해... 명예 훼손이다"

의원만 참가하는 반쪽 선거 끝에 의장에 선출됐다. 이 과정에서 임기 2년의 의장직을 1년씩 나눠 갖기로 했다는 것이 유 전 의장 등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조 의장과 김 의원은 "의장 임기 나눠먹기는 우리 두 사람이 의장 후보로 거론됐던 탓에 나뉘던 소문에 불과하다"면서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for 'Injagood' furniture store. It features a large headline '아직도 고가의 온돌침대를 목돈으로 구입하십니까?' and lists various furniture items like beds and sofas with prices. It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phone number: TEL. 062) 961-9994.

Advertisement for 'Injagood' celebrating its 10th anniversary. It features a large headline '재혼만 10년!' and a photo of a smiling couple. The ad lists various services and products offered by the company, including furniture and home appliances, and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TEL. 527-3388.